

대 학 평 의 원 회 회 의 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18.04.06.
의원수 : 11명	출석의원수 : 9명

1. 회의일시 : 2018년 4월 13일(금) 오후 1시 30분

2. 회의장소 : 대회의실(9동 2층)

3. 의원 출·결 현황

이명환, 김택균, 정충량, 양용원, 김용걸, 이광성, 한기복, 장선훈, 조미경 등 총 9명
(불참자 : 김용태, 강수훈)

4. 회의안건

- 1) 제1안 :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자문
- 2) 제2안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계획(안) 심의
- 3) 제3안 : 2019학년도 입학정원조정 계획(안) 자문
- 4) 제4안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추천위원 선정




5. 회의내용

[의 장] 조금은 쌀쌀한 날씨에 참석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전보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참석에 의거 개회를 선언하고 금일 안건은 총 4개라고 말하고 제1안은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자문에 관한 사항이고 제2안은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계획(안) 심의이며, 제3안은 2019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계획(안) 자문에 관한 내용이고 마지막 안건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추천위원 선정에 관한 건이라고 말하고 각 안건을 상정한 주무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제1안부터 주무부서 팀장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총무팀장]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은 68,052,337천원이며 총수입 중 등록금 수입은 32,593,384천원이었다고 설명하고 등록금이 전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동결되어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총지출의 주요특징으로 보수는 전년대비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직원 퇴직금 지급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연구학생경비 중 교내연구 신청 시기에 따른 집행으로 이 부분 역시 약간 감소하였다고 말하며 설명을 마치다.

[의 장] 각 위원에게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정충량의원] 금번 신축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묻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용걸	
------------	---	------------	--	------------	---

[총무팀장] 비등록금회계로 집행하고 완공된 시점에 건물로 대체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 하였다고 설명하다.

[정충량의원] 이미 외부회계감사를 한 번 거쳤기 때문에 서류상 별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다.

[의 장] 아마도 계속적으로 등록금을 상승시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학생 수 역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 상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의 재정담당자들은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행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다른 의원들에게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김용걸의원] 의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더 이상 질문이 없다고 말하다.

[의 장] 제1안인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건은 자문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알리고 제2안에 대해 주무부서에 설명을 요구하다.

[기획예산팀장]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의 점점 대학의 자율적인 집행으로 변화됨에 따라 명확한 발전계획에 따른 제원의 사용이 요구되는바 현재 작성되어 있는 발전계획은 2019학년도까지 활용하고 2020년부터 사용하게될 우리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작성을 위해 대학발전위원회와 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대학발전위원회는 교무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고, 대학발전추진위원회는 각 부서 팀장과 센터장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기존의 발전계획보다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대학을 특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하고 설명을 마치다.

[의 장] 각 위원에게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안)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김용걸의원] 기존에 작성된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작성시 참여하였던 위원의 입장에서 참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다.




[의 장] 김용걸의원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등록금수입 감소와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생존은 이제 가상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대학 구성원들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팀장과 센터장을 중심으로 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 교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지 묻다.

[기획예산팀장] 각 부서의 센터장님은 전부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 팀장은 12명, 교원 센터장은 9명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구성하겠다고 답변하다.

[의 장] 다른 의원들에게 더 이상 질문이 없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우리대학이 향후 30년 이상 존속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협심하여 우리대학에 적합한 발전계획을 작성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에 대해 각 의원들의 의견을 묻다.

[김용걸의원] 동의하다.

[장선훈의원] 제청하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용걸	
------------	---	------------	--	------------	---

[의 장] 제2안인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안)은 상정된 안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음을 알리고 제3안에 대해 주무부서에 설명을 요구하다.

[기획예산팀장] 제3안은 2019학년도 입학정원조정 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교육부로부터 10명의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추가로 승인 받아 편제정원이 40명 증원되어 타학과에서 40명의 편제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방송문화콘텐츠과에서 학과명을 방송문화과로 변경함과 동시에 학제를 기존 3년제에서 2년제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학과평가를 기준으로 학과를 선정하여 주얼리디자인과와 호텔외식조리과에서 각각 2명과 3명의 편제정원을 감소하기로 하여 학과별 입학정원이 조정될 예정이나 전체적인 입학정원은 2018학년도와 동일할 것이라고 말하고 2019학년도 학과 통합의 경우 바이오정보과와 컴퓨터정보과는 의료IT융합과로 통합하고 보험경영과와 마케팅관리과 및 경영정보과는 의료경영과로 통합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2019학년도 입시부터 통합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하다.

[의 장] 각 위원에게 2019학년도 입학정원조정 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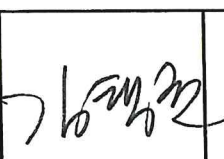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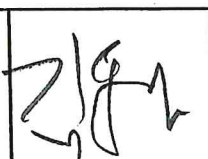
[한기복의원] 학과 통합에 있어 우려 되는 부분은 기존의 의무행정과와 보건의료정보과의 통합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학과 개설 당시에는 특성이 분명했으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점점 비슷해지는 경향이 나타나 결국 통합되게 되었는데 현재 5개 학과가 2개 학과로 통합되는데 학과의 특성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더 나아가 통합된 입학정원으로 입시를 치러야 하는데 과연 93명을 어떠한 방식에 따라 효율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기획예산팀장] 학과와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동일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을 하였고 주무부서에서는 신입생 모집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학과에 입학정원을 줄여서 시행하시고 향후 상황을 판단하여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학과에서 반대하였다고 답변하고 입학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과와 협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설명하다.

[양용원위원] 현재 비슷한 성격의 학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외적인 환경에서는 비슷한 학과라고 판단이 되면 취업 등 분야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 학과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한 학과 통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하다.

[기획예산팀장] 양용원의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표하며 우리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타대학과 비교하여 비교우위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다가올 미래에 선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다.

[의 장] 각 위원에게 2019학년도 입학정원조정 계획(안)에 대해 질문이 없는지 의사를 묻고 주무부서에서는 금일 회의에서 자문된 내용을 잘 파악하여 향후 발전계획이나 학과 조정방안 마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발언하고 제3안에 대한 자문을 마칠 것을 말하고 제4안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대학평의회 추천위원 선정에 관한 건은 기존 대학 평의회 운영규정상에 규정되어 있던 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2018년 4월 1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라는 제목으로 별도 신규 규정으로 제정하였고 내용을 보면 개방이사(감사 포함) 추천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우리 법인에서 추천한 2인과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용걸	
------------	---	------------	--	------------	---

요청이 있는 후 30일 이내에 이사는 2배수 추천하고 감사의 경우 1배수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금일 안건은 우리 법인의 감사 추천요청에 의거 대학평의회 추천인원 3명을 선정하는 안건이라고 말하고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다.

[장선훈위원] 대학평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당연히 추천되어야 하고 경험이 많으신 김택균의원님까지 총 3분을 선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원들의 의견을 묻다.

[한기복위원] 제청하다.

[조미경위원] 동의하다.

[의 장] 제4안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대학평의회 추천위원은 의장, 부의장, 김택균의원 등 총 3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심의하고 금일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고 중요사항을 고려하여 자문하였다고 설명하고 회의를 마치다.(14:52분 산회)

2018년 4월 13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회 평의원 : 이 명 환

평의원 : 김 택 균

평의원 : 양 용 원

평의원 : 김 용 태

평의원 : 정 총 량

평의원 : 김 용 걸

평의원 : 이 광 성

평의원 : 조 미 경

평의원 : 장 선 훈

평의원 : 한 기 복

평의원 : 강 수 훈